



문 현대의 질병양상은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만성질환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책에서 읽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는 더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?

답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지난 수 십년 동안에 전염성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이 현저하게 줄기는 하였으나,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, 선진국가에서도 아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몇가지 전염병에 대한 전염경로, 증상 및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.

◎장티푸스

전염경로

- 환자 또는 보균자의 장내 배설물에서 나온 균에 의하여 전파된다.
- 환자 또는 보균자에 의하여 직접전파되거나 오염된 물이나 파리 등의 곤충에 의해서 간접 전파된다.

증상

- 고열이 난다.
- 팔 다리가 쭈시고 아프며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.
- 복통과 설사가 심하다.
-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.

예방법

- 환자는 격리수용하여 치료하며, 환자의 조기발견과 보균자 색출이 중요하다.
- 음료수는 반드시 끓이거나 소독 후에 마신다.
- 날 음식을 삼가한다.
- 우물 소독을 정기적으로 한다.
- 개천에서 오염된 물로 야채를 씻지말자.
- 집 주위를 깨끗이 하여 파리나 곤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.
- 용변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.

◎이질

전염경로 및 예방법

- 장티푸스와 동일

증상

- 오한이 나며 복통과 설사를 동반한다.
- 점액성 혈변을 볼 수 있다.

◎디프테리아

전염경로

- 환자의 코 및 목 분비물 혹은 피부에서 직접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전파된다.

증상

- 목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.
- 목이 쉬고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를 낸다.
- 코에서 혈성 콧물이 나올 수 있다.

만리장성은 또 있다

-공포와 매혹의 대륙 중국



-백문사 권·여행에세이 選 3
 -김윤기(해외의학교류회장, '최신여행정보' 발행인)지음

중국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. 이것은 어쩌면 달아두었던 문을 갑자기 연 것이 원인일 것이다.

중국은 무섭도록 매혹적인 나라이다. 온 국토에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역사적, 문화적 유물이 깔렸다.

싫어도 중국은 이웃나라이다. 중국의 현실과 변화를 모르고는 살 수 없다. 중국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, 알아야 할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어 놓는다.(필자 서문 중에서)

예방법

- 예방주사를 맞는다.
- 환자 또는 보균자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.

◎홍역

전염경로

- 환자의 코나 목이 분비물로 전파되며 이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된다.

증상

- 발열, 기침, 콧물, 결막염이 나타나며, 구강 점막에 특징적인 Koplik 반점이 나타난다.
- 피부 발진이 귀 뒤에서부터 시작하여 급속히 얼굴, 목, 팔, 몸통상부로 퍼진다.

예방법

- 예방접종을 실시한다.
-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.
- 환자의 코나 목의 분비물 또는 이로 인해

오염된 물을 소독하고 청결히 한다.

◎백일해

전염경로

- 전염성이 극히 강하며 환자의 인두, 기관지 점막 분비물과 이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전파된다.

증상

- 기침과 함께 콧물, 재채기가 나며 야간에 특히 심하고, 증세가 심해짐에 따라 발작적인 경련성 기침을 하게 된다.

예방법

- 예방접종을 실시한다.
-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.
- 환자의 코나 목의 분비물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을 소독하고 청결히 한다.

(건협 서울지부부속의원장 이증범 박사)